

경제학원론

해설위원: **장 선 구**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평과 시험대비 방법

2017년 서울시 경제학 기출문제는 대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이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간단한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약간의 순발력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13번, 15번, 16번, 18번의 4문제가 고득점의 여부를 결정짓는 난이도 상의 문제가 분류할 수 있겠다.

13번의 경우는 GDP의 기본개념인데, 중간에 최종소비로 사용되는 경우로 일반적인 경우를 확장한 것인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쉬운 것은 아니다.

15번은 피셔가설과 구매력평가설을 연결한 것인데, 기타 다른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 바가 있으므로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16번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의 조르겐슨의 사용자 비용을 간단한 계산식을 이용한 문제이다. 투자이론은 전통적으로 토빈의 Q를 주로 출제하는데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투자 공식을 알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18번은 직접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잉여의 수치가 주어져 있다면 직접구해야 되지만, 이 경우는 2배이상이니, 크니, 작니 등을 물어본 것으로 직접 구하기 보다는 감각적으로 풀어야 한다.

앞으로 시행될 국가직과 지방직의 경우는 서울시보다 난이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계산문제를 중심으로 잘 준비해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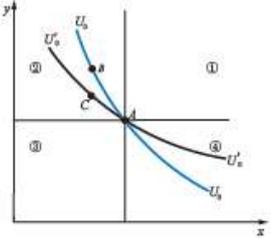
※참고로 서울시 기출문제 해설은 7월3일 윌비스 고시학원에서 무료 강의 실시합니다.

01.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선호체계에 있어서 이행성(transitivity)이 성립한다면, 무차별곡선은 서로 교차할 수 있다.
- ② 두 재화가 완전대체제일 경우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그려진다.
- ③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생겼다는 것은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이 성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두 재화 중 한 재화가 비재화(bads)일 경우에도 상품조합이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수준을 나타낸다.

[정답] ③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선호와 무차별곡선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13 p. 16
[간단 해설]

① 무차별곡선끼리는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무차별곡선이 서로 교차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무차별곡선이 교차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호에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 무차별곡선이 [그림]과 같이 서로 교차한다고 가정해보자. 점 A와 점 B는 동일한 무차별곡선상에 있으므로 소비자는 동일한 만족을 느낀다. 그리고 점 A와 점 C도 동일한 무차별곡선상에 있으므로 소비자의 만족수준은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점 B와 점 C도 만족수준이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점 B는 점 C에 비해서 콜라와 피자 모두를 더 많이 소비하는 조합이므로, 점 B는 점 C에 비해 보다 큰 만족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점 B와 점 C의 만족수준이 동일하다는 것에 모순이 발생하므로 무차별곡선은 서로 교차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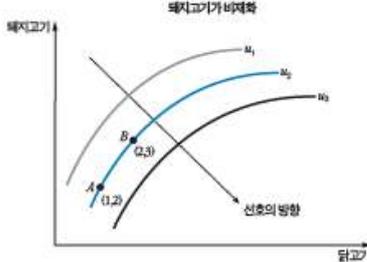
② 두 재화가 완전대체제인 경우에는 콜라와 사이더처럼 색깔만 다르고 완전히 동질적인 재화로 생각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콜라와 사이더는 완전한 대체재가 아닌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는 500원짜리 동전 한 개와 100원짜리 동전 5개를 완전대체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도 동전의 썩그랑 소리가 부담되어 차라리 하나의 동전인 500원짜리를 100원짜리 5개보다 선호하는 경우는 완전대체재가 아닐 수도 있다.) 완전대체제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호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전히 동질적인 재화로 생각하는 경우이다. 간단한 효용함수의 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u = x + y$
 효용함수는 무차별곡선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효용함수를 y 재를 기준으로 수직축에 나타낸 것이 바로 무차별곡선이며, 이 경우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 물론 교환비율에 따라서 기울기는 1이 아닐 수도 있으며, 단지 한계대체율인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다.

③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경우에는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수평축에 있는 x 재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y 재의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교환비율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를 한계대체율이 체감한다고 한다. 만일 무차별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인 경우에는 한계대체율이 일정하고,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경우에는 한계대체율이 체증하는 경우이다.

④ 두 재화 중의 하나가 비재화인 경우에는 비재화가 어디에 위치했는가에 따라서 효용의 증가방향은 달라진다.

어떤 두 재화를 돼지고기와 닭고기라고 하자. 어떤 소비자가 닭고기는 좋아하는데 돼지고기는 싫어한다고 가정하자. 다시 말해서 이 소비자에게는 돼지고기가 비재화(음(-)의 효용을 주는 재화)로 간주된다. 이 경우 돼지고기를 더 많이 소비하면 더욱 불만이 커지므로 닭고기를 더 주어 보상해야 동일한 만족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소비가 동시에 서로 많아져야 무차별하다. 즉 [그림]의 A점에서B점으로의 이동처럼 무차별곡선이 우상향하는 관계를 보여준다.



04. 내생적 성장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R&D 모형에서 기술진보는 지식의 축적을 의미하며, 지식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다고 본다.
- ② R&D 모형과 솔로우(Solow) 모형은 한계수확체감의 법칙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의 기술진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③ 솔로우(Solow) 모형과 달리 AK 모형에서의 저축률 변화는 균제상태에서 수준효과뿐만 아니라 성장효과도 갖게 된다.
- ④ AK 모형에서 인적자본은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정답] ①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내생적 성장이론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110 p.125

[간단 해설]

- ① 기술진보는 지식의 축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식의 축적이 연구개발(R&D) 모형이라고 한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서울대 교수님의 “축적의 시간”과 “축적의 길”이라는 책도 등장한 바가 있다.) 이러한 지식의 가장 큰 특징은 원래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발명가가 얻을 수 있는 지대가 작아지기 때문에 지적재산권과 같은 방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해 준다. 따라서 지식의 경우는 비배제성이 아닌 배제성이라고 해야 한다. (『원샷 123』 교재의 하단의 3번째 줄을 인용하면, 기술진보는 비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을 지닌 지식의 축적과 연결되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다.)
- ② R&D모형인 내생적 성장이론도 기술진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물론 솔로우 모형에서도 기술진보를 강조한다. 『원샷 123』 P124에 보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지속적인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1회적인 기술진보는 단기적인 경제성장만 가져온다고 본다. 따라서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점은 크게 보면 동일하지만, 가까워서 미시적으로 보면 솔로우의 경우에는 “지속적인”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
- ③ 내생적 성장이론의 대표적인 AK모형에서는 저축률의 변화는 수준효과 뿐만 아니라 성장효과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솔로우 모형에서는 저축률의 상승은 균제상태에서 수준효과(level effect)는 있으나 성장효과(growth effect)는 없다는 점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 ④ 인적자본이란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인간에 체화된 자본을 말한다. 단순한 기술이 없는 노동자가 아닌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노동자를 말한다. 피터 드러커는 이를 “지식 노동자”라고 이야기 한 바가 있다. 결국 기업이 어느 노동자에게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게 되는 경우 그 지식과 기술은 노동자에게 체화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하게 된다. 결국 다른 기업에게 투자한 이득을 빼앗기는 것이다. 노동경제학에서는 그 결과 기업들이 신입사원에게 기술과 노하우는 전수하는 경우에 일부러 오랜 기간 동안 회사에 남아있을 사람들에게만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05. 다음 중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에 따른 예측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만족 수준 한 단위가 현금 1만원과 동일한 수준의 효용이다.)

김 씨와 이 씨가 한집에 살고 있다. 평상시 두 사람의 만족 수준을 100이라고 하자. 김 씨는 집 안 전체에 음악을 틀고 있으면 만족 수준이 200이 된다. 반면, 이 씨는 음악이 틀어져있는 공간에서는 만족 수준이 50에 그친다.

- ①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든지 집 안 전체의 음악 재생여부는 동일하다.
- ②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한 권리가 이 씨에게 있는 경우 둘 사이에 자금의 이전이 발생한다.
- ③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한 권리가 김 씨에게 있는 경우 그는 음악을 틀 것이다.
- ④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한 권리가 이 씨에게 있는 경우 집 안은 고요할 것이다.

[정답] ④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코즈 정리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63 p.74

[간단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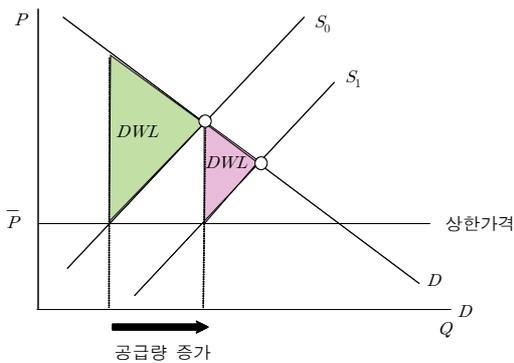
- 코즈 정리의 기본핵심은 외부성 문제가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실패 같은 외부성의 문제도 정부가 개입할 것이 아닌 시장의 자발적인 협상과 교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개입과 개입에 반대 주장은 거시경제학의 케인즈와 고전학파의 철학적 대립으로 이어진다.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시카고 대학에서 그 맥을 계승하고 있으며, 케인즈의 경우에는 시장실패를 받아들이고 정부가 개입해서 이를 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그 맥을 계승하고 있다.
- ① 코즈 정리와 관련해서 객관식에서 매번 등장하는 지문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가는 해결에 있어서 무관하다는 것이다.
- ② 목마른 사람이 땅을 파듯이 고통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에 대해서 얻게 되는 만족과 음악이 흐르는 멜로디 상황을 향유할 권리에 대해서 얻게 되는 만족의 크기를 비교해서 만족이 더 큰 사람이 적절한 가격을 금전적으로 제시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③, ④ 문제에서는 고통한 상황에서 김씨가 얻는 만족이 50인데 음악이 있는 경우에 이씨가 얻는 만족이 200이므로 당연히 50과 200의 중간에서 가격을 흥정하여 음악이 흘러나오게 된다.

06.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쌀 시장에 가격상한제(price ceiling)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쌀 농사에 유리한 기후 조건으로 쌀 공급이 소폭 증가했을 때 예상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단, 시장 균형가격은 과거나 지금이나 가격상한선보다 높다.)
- ① 규제로 인한 자중후생손실(deadweight loss)이 감소한다.
 - ②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이 하락한다.
 - ③ 공급자 잉여가 감소한다.
 - ④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정답] ①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가격상한제(최고가가격제)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10 p.11
[간단 해설]

간단한 그림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그렇지만, 공급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증가할 것이고 당연히 그 공급량 증가로 인한 혜택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모두 일정부분 향유하게 된다. 시장의 가격이 하락하여 가격상한제(최고가가격제)와 근접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균형가격과 통제가격의 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왜곡이 감소했다는 점이 감각적으로 와 닿아야 한다. (그런 느낌이 없으면...ㅠㅠ)

- ① 자중후생손실은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감소하게 된다. (자중손실의 크기는 [그림]에서 삼각형의 크기로 균형이전보다 이후가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다.)
- ② 시장에서 균형가격은 가격상한제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장의 거래가격은 여전히 가격상한제의 최고가격에서 결정될 것이고 그 결과 거래가격은 이전과 동일하게 된다.
- ③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공급자의 잉여는 증가한다.
- ④ 균형점에서 소비자의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잉여는 증가한다.



07. 케인즈(J. M. Keynes)의 단순 국민소득 결정모형(소득-지출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계저축성향이 클수록 투자의 승수효과는 작아진다.
 - ② 디플레이션 갭(deflation gap)이 존재하면 일반적으로 실업이 유발된다.
 - ③ 임의의 국민소득 수준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에 미치지 못할 때, 그 국민소득 수준에서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한다고 한다.
 - ④ 정부지출 증가액과 조세감면액이 동일하다면 정부지출 증가가 조세감면보다 국민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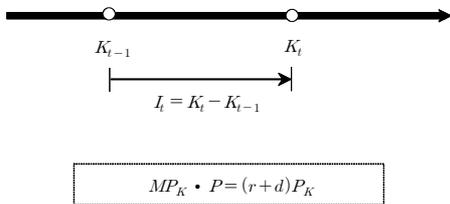
[정답] ③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승수효과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68 p.82
[간단 해설]

- ① 한계저축성향이 클수록 국민소득순환과정에서 누출이 크게 되므로 승수효과는 작아지게 된다. (공식으로 하지 말고 누출과 주입의 직관적인 측면으로 접근 하길 바란다.)
- ② 디플레이션갭이 존재한다는 것은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것이고 결국 실업이 유발된다.
- ③ 디플레이션갭과 인플레이션 갭의 기준은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완전고용국민소득 수준이란 가장 효율적인 상황으로 경제학에서는 완전경쟁시장과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거시경제학의 여러 지표를 볼때도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얼마나 현실에서 부족한지를 측정하게 된다.
- ④ 균형재정승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지출액을 증가시키면 바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지만, 조세감면을 동일한 크기만큼 하게 되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한계소비성향이란 거름종이에 걸리게 되어 소비의 증가는 일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지출의 증가 효과가 조세감면 효과보다 크게 된다. 역시 공식은 그냥 암기해두면 좋지만, 직관적으로 왜 그런일이 발생하는지를 느낌으로 알아야 한다.

16. 어느 기업의 자본의 한계생산물(MP_K)이 $50-0.1K$ 라고 하자. 자본재 가격은 단위당 10,000원, 감가상각률은 5%로 일정하며, 생산물 가격은 단위당 200원으로 일정하다. 실질이자율이 초기 10%에서 5%로 하락하였을 때, 이 기업의 초기 자본량(K_0)과 바람직한 투자수준(I)은? (단, K 는 자본량이다.)
- ① $K_0 = 375, I = 25$ ② $K_0 = 375, I = 50$
 ③ $K_0 = 425, I = 25$ ④ $K_0 = 425, I = 50$

[정답] ③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투자와 자본의 증가(신고전파투자 결정이론)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74 p.88
[간단 해설]

투자는 자본의 증가로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t 기의 투자는 t 기의 자본량에서 $(t-1)$ 기의 자본량을 뺀 것이다. 신고전파투자이론인 조르겐슨의 자본의 사용자 비용의 공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게 된다.

■ 실질이자율이 0.1인 경우

$$(50 - 0.1K_0)200 = (0.1 + 0.05)10,000$$

$$K_0 = 425$$

■ 실질이자율이 0.05로 하락한 경우

$$(50 - 0.1K_1)200 = (0.05 + 0.05)10,000$$

$$K_1 = 450$$

따라서 투자는 이자율 변화 후에 자본량의 증가크기를 의미하므로 $I = K_1 - K_0 = 25$ 가 된다.

17. 실업과 인플레이션 및 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총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은 실업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상충관계를 가져온다.
 ②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합리적 기대하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확장적 통화정책도 단기적으로 실제 실업률을 자연실업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시킬 수 없다.
 ③ 프리드만(M. Friedman)과 펠프스(E. Phelps)의 기대가 부가된 필립스 곡선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은 적응적 기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④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 재정확대 정책은 필립스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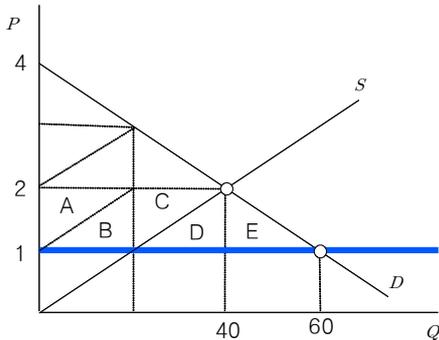
[정답] ③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97 p.111
[간단 해설]

- ① 총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AS곡선이 이동하게 된다. 예를들어 유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AS가 상방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Y는 감소하면서 P는 상승한다. 결국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문제에서는 국민소득이 아닌 실업과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므로 실업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므로 상충(trade-off)관계가 아니다.
- ② 합리적 기대하에서는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일시에 자연실업을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업률을 하락시킬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에 바로 반영되면 그 효과는 바로 사라진다.
- ③ 프리드만-펠프스가 제기한 기대부가필립스 곡선은 적응적 기대를 기본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④ 재정확대정책은 총수요(AD)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지만 총공급(AS)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18. A국은 자동차 수입을 금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은 2억원이고 판매량은 40만대에 불과하다. 어느 날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자동차 시장을 전격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개방 이후 자동차 가격은 국제시세인 1억원으로 하락하였고, 국내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량도 60만대로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직선이며, 공급곡선은 원점을 지난다.)
- ① 국내 소비자 잉여 증가분은 국내 생산자 잉여 감소분의 2배 이상이다.
 - ② 국내 사회적 잉여 증가분은 국내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크다.
 - ③ 국내 소비자 잉여는 예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④ 국내 사회적 잉여 증가분은 국내 소비자 잉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다.

[정답] ③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개방화의 효과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116 p.132
[간단 해설]

이 문제는 직접 구하는 것 보다는 순발력을 이용한 것이다. 자료해석과 같은 스타일의 문제로, 앞으로 한 두문제는 비슷하게 출제될 수 있으므로 맘을 편하게 먹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이런 그래프와 관련되니 문제는 어차피 그런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균형전과 균형 이후의 두 점을 제시해주었으므로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공급곡선은 원점을 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주었다는 것은 뭔가 직접 구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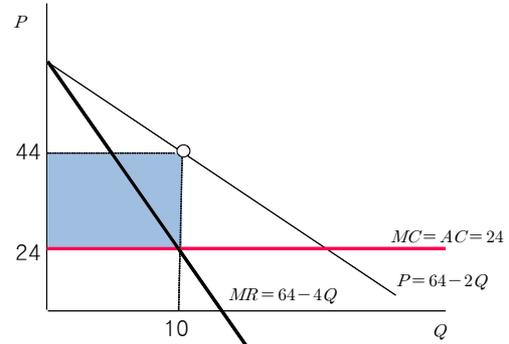


- ① 국내소비자 잉여 증가(A+B+C+D+E)는 삼각형이 크기가 5개 증가했는데, 생산자의 잉여감소(A+B+C)는 삼각형의 크기가 3개 감소했으므로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 감소분의 2배 이상이 아니다.
- ② 국내 사회적 잉여 증가분의 크기(D+E)는 삼각형이 2개인데, 국내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삼각형 3개로 더 작다.
- ③ 국내 소비자 잉여는 이전에는 삼각형의 크기가 4개였으나, 이후에는 9개가 되어 잉여의 증가분은 2배 이상이 되었다.
- ④ 국내 사회적 잉여 증가분의 크기는 삼각형 2개인데, 국내 소비자 잉여 증가분의 크기는 삼각형이 3개이므로 절반보다 작다.

19. X재의 생산자는 A와 B, 두 기업밖에 없다고 하자. X재의 시장수요함수는 $Q=32-0.5P$ 이고, 한계비용은 24로 일정하다. A와 B가 공모해서 독점 기업처럼 이윤극대화를 하고 생산량을 똑같이 나누기로 한다면, 기업 A가 얻는 이윤은? (단, 고정비용은 0이다.)
- ① 20
 - ② 64
 - ③ 88
 - ④ 170

[정답] ④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독점이윤 크기 계산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p.
[간단 해설]

담합을 통해서 독점기업의 이윤을 얻게 된 후 이를 반으로 나누는 상황이다. 따라서 독점기업의 이윤을 구하고 이의 절반을 구하면 된다. 문제에서는 고정비용이 없다고 했으므로 한계비용과 마찬가지로 평균비용도 24로 같다는 점을 잘 체크해야 한다. 따라서 $MC=AC=24$ 이다. 수요곡선이 $P=64-2Q$ 이므로 MR 은 수요곡선보다 기울기가 2배 가파르다. 따라서 $MR=64-4Q$ 이다. 독점이므로 $MR=MC$ 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구하고 이를 수요곡선에 대입하면 독점가격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그림]으로 나타냈으며, 이윤은 빗금 친 사각형의 면적이 된다.



20. 갑작스러운 국제 유가 상승으로 A국에서 총생산이 줄어들고 물가가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발생하였다. <보기>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부 장관이 나눈 대화이다. 본 대화에 대한 논평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중앙은행 총재 : 무엇보다도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이자율을 올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 재무부 장관 :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경기침체 완화를 위해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 ①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은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업률을 보다 높일 수 있다.
- ② 재정확대 정책은 자연산출량(natural rate of output)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 ③ 재정확대 정책을 실시할 경우 현재보다 물가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을 각오해야 한다.
- ④ 만약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

[정답] ②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스태그플레이션의 정부 딜레마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92 p.106

[간단 해설]

- ① 이자율을 올리면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총수요의 감소로 AD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국민소득의 감소는 실업률을 높이게 된다.
- ② 재정확대정책은 총수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에 완전고용수준인 자연산출량(자연실업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다. 자연산출량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AS곡선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 ③ 재정확대 정책을 실시하면 정부지출 증가로 IS곡선과 AD곡선이 상방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 ④ 갑작스러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 다시 AS곡선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유가하락이나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비용절감효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공급측면의 우연 혹은 아주 장기적인 기다림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히 케인즈학과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